

Magazine

새벽종

2025 05+06 제20호

새벽종

2025 05+06 제20호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더 많은 〈새벽종〉을 만나보세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Happy 행복하게



THEME

우리의 내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함께 잘사는 세상'을 향한 희망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5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세기를 넘어 이어온 땀과 연대의 역사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새마을운동은 오늘도 변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 ▶ [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https://www.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
- 📷 [instagram.com/letssaemaul](https://www.instagram.com/letssaemaul)
- 📘 [facebook.com/letssaemaul](https://www.facebook.com/letssaemaul)
- 📝 blog.naver.com/letssaemaul
- 📱 pf.kakao.com/_zNkxnT

올리다

06

새마을 줄인
새마을운동 55년,
그 정신을 잇다

10

새벽종 소리
새마을운동 55주년
그 영광의 순간들

깨우다

24

새마을 인터뷰
강원 속초시새마을회

28

청년 새마을 특
충북 괴산군청년새마을연대

14

반가운 올림
새마을운동 55주년
특집인터뷰

18

새마을 On Air
새마을운동,
산불 재난에 긴급 지원 나서

22

새마을운동 일기
젓빛 위에 피어난
녹색 희망

32

지구촌 새마을, 함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탄자니아 & 잠비아

36

희망 에세이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
새마을가족의 마음이 푸른 숲을 이루다



Cover Story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따뜻한 마음, 가족을 넘어 이웃을 품는 공동체의 힘,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온 시간. 그 중심엔 늘 새마을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새마을운동 55주년. 가족을 돌보듯 이웃을 아끼고, 마을을 가꾸은 그 마음으로 새마을운동은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만나다

38

심포 여행
낭만의 또 다른 이름 '여수'

42

생생정보
진화하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44

새마을 포커스

57

새마을 라운지



새마을운동 55년, 그 정신을 잇다

‘함께 새마을, 미래로·세계로’ ...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공동체 정신을 이끌어온 새마을운동이 어느덧 55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는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월 22일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함께 새마을, 미래로·세계로’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새마을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고 내일로 확장해나갈 뜻을 모았다. 더 나은 대한민국, 그리고 상생하는 지구촌을 향한 다짐이 진지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울려 퍼진 시간이었다.

글. 강진우 사진.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과 비전 공유의 장

1970년 4월 22일, ‘새마을가꾸기운동’이 시작된 이래 5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의 눈부신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으며,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 모델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되새기기 위해 4월 22일을 법정 기념일인 ‘새마을의 날’로 지정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새마을운동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지난 4월 22일, 그 뜻깊은 출발점을 기념하며 ‘새마을운동 55주년,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헌신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뜻을 기리고,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계승하며, ‘함께 새마을, 미래로·세계로’라는 새마을운동의 비전을 널리 알리는 귀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신상진 성남시장, 양윤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회장, 김정임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 전문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김종철 새마을문고중앙회장,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등 내빈을 비롯해 전국 새마을회장단,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탄자니아와 잠비아에서 온 새마을운동 해외 교육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변화의 동력,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한 새마을운동 홍보 영상 시청으로 문을 열었다. 영상에는 새마을운동의 출범부터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왼쪽 여섯 번째)과 새마을운동의 발전에 공로를 세운 수상자들

현재까지의 발자취는 물론 그 정신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흐름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영상을 지켜보던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박수를 치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5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여전히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고민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어쩌면 이 운동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나눔의 실천 덕분이 아닐까.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로 향하는 새마을정신

‘새마을운동 55주년,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열린 자리에서는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이끌어온 이들의 헌신을 기리는 다양한 시상도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공로 표창을 넘어, 과거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미래로 전하는 소중한 의식이었다.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부터 새마을회장, 감사패, 새마을기념장, 2024년도 전국 시도·시군구 종합평가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임일철 충청북도단양군협의회장 등 10명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새마을회장을 받으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영수 대구광역시 새마을회장은 감사패를, 변봉남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을 비롯한 9명은 새마을기념장을 수여받았다. 이어진 종합평가 시상식에서는 그간의 지역별 활동 성과가 빛을 발했다. 부산광역시새마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임일철 충청북도 단양군협의회장(맨 오른쪽)



기념사를 전하고 있는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회가 시도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충청남도새마을회와 전라남도 새마을회는 우수상, 대전광역시새마을회, 충청북도새마을회, 경상북도새마을회는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와 이북5도새마을회는 노력상을 수상하며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시군구 종합평가에서는 충청북도 청주시새마을회가 최우수상을, 부산광역시 북구새마을회와 부산진구새마을회, 전라남도 여수시 새마을회와 무안군새마을회, 경상남도 통영시새마을회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부산광역시 금정구새마을회와 사상구새마을회, 수영구새마을회, 울산광역시 남구새마을회, 충청북도 단양군새마을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새마을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새마을회, 광주광역시 서구새마을회, 대전광역시 동구새마을회, 경기도 성남시새마을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새마을회, 충청남도 보령시새마을회, 경상북도 상주시새마을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새마을회가 장려상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새마을회와 송파구새마을회, 전라남도 화순군새마을회와 강진군새마을회, 경상남도 양산시새마을회와 산청군새마을회, 밀양시새마을회, 전라북도 순창군새마을회, 충청북도 괴산군새마을회, 부산광역시 영도구새마을회가 노력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 후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55년을 되돌아보며, 새마을운동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온 역사적 여정을 강조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 최근 경북·경남 산불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등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새마을운동이 위기 속에서 실천의 힘을 보여주었다

고 말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안보 위기, 불확실한 경제,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기에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새마을, 미래로·세계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새마을정신이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김광림 중앙회장의 메시지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과거 ‘잘 살아보자’는 절실함이 근대화의 초석을 다졌다면, 오늘날 새마을회원들의 나눔과 헌신은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새마을정신이 오늘을 품고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영상으로 전해진 해외 축사도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키노카 페오 파푸아뉴기니 고등교육부 장관이 영상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우리 정부의 농촌개발 정책으로 채택되어,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5개 도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샤리프존 주마조다 타지키스탄 대통령 산하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장은 “타지키스탄이 새마을운동 시범사업국으로서 마을에 선진 사례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타지키스탄의 새마을운동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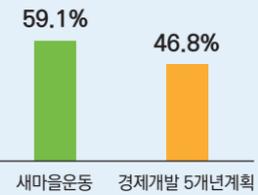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토대를 다져온 새마을운동. 이제 그 정신은 ‘녹색·건강·문화’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지속 가능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희망으로 되새겨졌다. 🌱

새마을가족 105만 명의 염원이 이뤄낸 ‘새마을의 날’ 제정 이야기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범국민적 참여 속에 시작돼, 시대가 변해도 그 가치와 영향력을 잃지 않고,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꼽힐 만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2010년)

새마을운동 40주년 여론조사(조선일보 외1), 리서치앤리서치, 전국 1,5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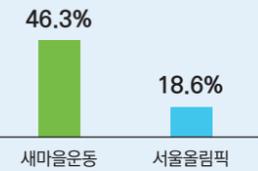
건국 이후 10대 업적(2008년)

새정부 출범 국민여론조사, 서울경제신문-한국리서치, 국민 1,001명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2007년)

건국 60주년 여론조사, 한국갤럽, 전국 724명



새마을의 날 제정 105만 명 서명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힘을 얻었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새마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9년 9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듬해 여름에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2010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새마을의 날 제정 100만 명 서명운동’에는 무려 105만 명이 동참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보여줬다. 결국 2011년 3월 8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8조의2(새마을의 날) 조항이 신설되며, ‘새마을의 날’은 정식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살펴보기

제8조의2(새마을의 날)

-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새벽중 퀴즈

Q.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매년 ○월 ○○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했다. 올해 55주년을 맞이한 새마을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



← QR코드를 스캔한 후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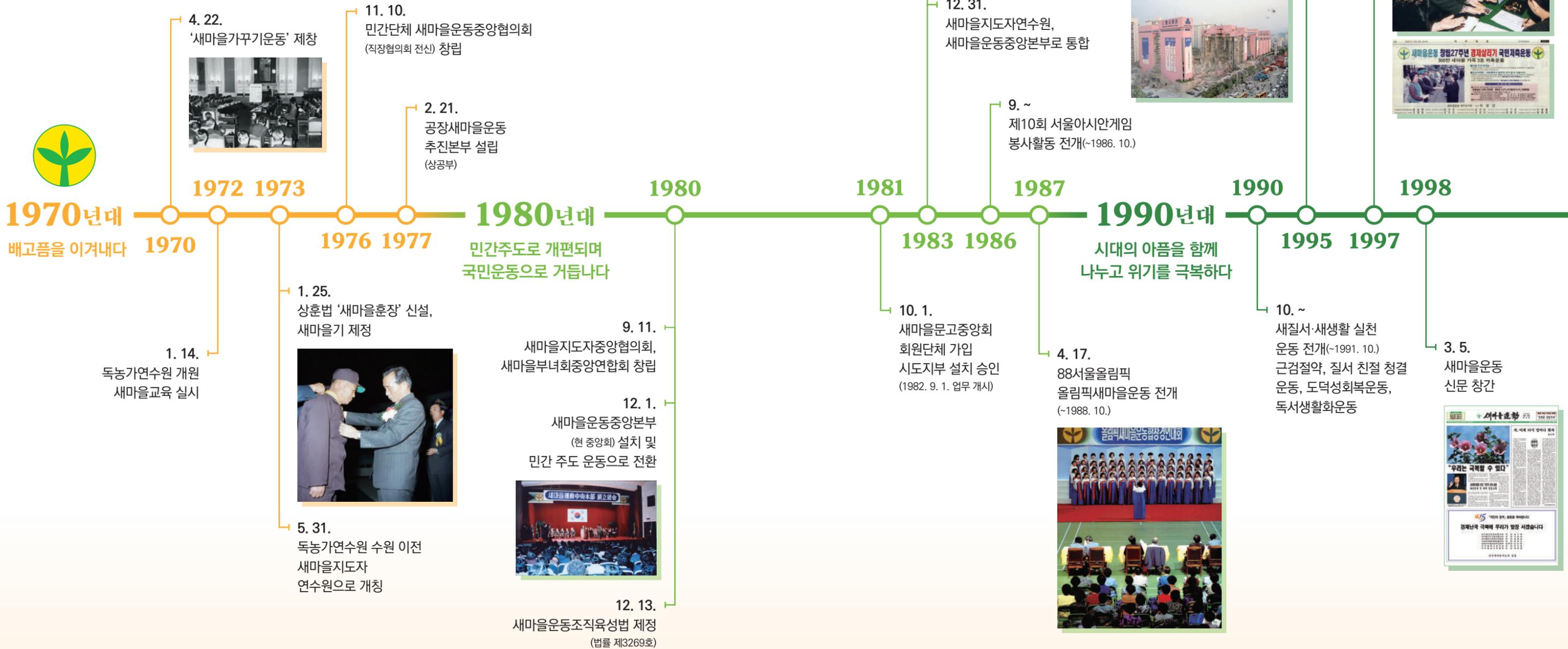
함께 잘사는 세상을 이룬다 새마을운동 55주년 그 영광의 순간들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희망으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55주년을 맞이했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 아래, 새마을운동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돼 왔다.

새마을운동이 일궈온 자랑스러운 발자취와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내일을 꿈꿔본다.

글. 편집실



2000년대

새천년을 향해
더 멀리 나아가다

2000 2007



10. 26.
ODA사업으로
지구촌새마을운동 확대

7. 20.
통일새마을운동 전개
(통일손수레 보내기,
산란종계장 지원 등)



9. 16.
태안 원유유출사고
방제 활동

2009

2010년대

대한민국 유산으로
국제 사회와 연대하다

2011



6. 18.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22,084건)

2013

2014

10. 19.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33개국 회원으로 출범(현재 46개국)



10. 21.
제1회
지구촌새마을
지도자대회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2016



3. 8.
새마을의 날 제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정, 법률 제10438호)

12. 27.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6호)-
새마을운동관련 기록물(3,015건)

2020년대

미래 세대와
함께 희망을 잇다

2020



2.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천마스크 제작, 방역,
거리두기 등 실천
(~2022. 12.)

6. 25.
새마을운동 제50주년
기념식

2022

2023



3. 10.
새마을운동 매거진
<새벽종> 창간

5. 13.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발족



2022

2023



11. 12.
2023 청년의 약속
선포식 개최

7. 5.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6. 18.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특별전

6. 17.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창립총회

2024

2025

9. 4.
2024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국장회의)

11. 5.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4. 22.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세대를 잇다, 새마을을 잇다

새마을운동 55주년
특집인터뷰

새마을운동 55주년을 맞아 네 명의 새마을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새마을운동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원로지도자, 새마을운동과 함께 태어난 세대의 지도자, 현장에서 변화를 이끄는 청년새마을연대,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대학새마을동아리까지. 세대도 다르고 활동 무대도 다르지만, 모두의 삶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 속에 깃든 '새마을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함께 돌아본다.

글. 이원복 사진. 손호남



울산청년새마을연합회장
이심경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부녀회장
박춘영

(전 새마을문고중앙회 고문)
김기호 원로지도자

전국대학새마을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이태윤



내 마음을 움직인 새마을운동

김기호 · 새마을운동이 어느덧 55주년을 맞았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1975년 도시 새마을운동을 시작으로 활동했으니, 올해로 딱 50년째 새마을운동에 몸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저 '새마을지도자'라는 호칭이 듣기 좋아서 마냥 열심히 했어요. 우리 젊은 지도자분들은 어떻게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해지네요.

박춘영 · 저는 1970년생으로 새마을운동과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새마을세대'인 셈이죠. 그래서인지 어른이 된 뒤 자연스럽게 새마을운동을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이심경 · 제 세대는 대부분 책이나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접한 사람들일 겁니다. 처음에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해 보니,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태윤 · 저 역시 책이나 영상으로 새마을운동을 접했는데요,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큰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이 신기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만남은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호 · 새마을운동이 처음 시작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180도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물론 의식까지 변화하면서 가난을 극복했고 이제는 세계적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으니까요.

박춘영 · 맞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중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 온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생활 환경 개선과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주를 이뤘는데요, 지금은 공동체문화 조성이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방향이 확장되고 있고요.

새마을운동으로 닦아온 길을 돌아보다

이심경 ·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양한 세대가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자리가 참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하는 청년으로서 선배님들께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새로운 세상을 만든
새마을운동은 '희망'이다.



김기호
원로지도자
(전 새마을문고중앙회 고문)

서는 어떤 새마을운동을 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김기호 • 그 시절엔 새마을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는 부녀회 활동을 하며 구판사업을 시작했죠. 이익금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는데요, 그때의 보람은 지금도 신바람 날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 외에도 '1가구 1통장 갖기 운동', '소비절약운동', '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책과 독서문화에도 관심이 많아 1985년부터는 자연스럽게 새마을문고에서 활동했어요. 도서 교환시장이나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며, 대구광역시의 독서문화운동을 이끌었죠. 정말 보람 있는 활동이었어요.

박춘영 • 당시 부녀회에서 구판사업을 하셨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지금 저희 대구 북구 검단동부녀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새마을연합회와 대학새마을동아리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이심경 • 울산청년새마을연합회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관내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인데요, 보수 작업까지 포함해 총 6년에 걸쳐 꾸준히 진행하는 장기 사업입니다.

내 마음을 신나게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는 새마을운동은
'신(新)바람'이다.



박춘영
대구 북구
검단동부녀회장

두 번째는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새마을운동을 알리는 일입니다. 울산 지역의 청년 사업가들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널리 알리는 거죠. 또한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면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그 결과 '청년새마을 지원 조례' 제정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많은 지역 청년이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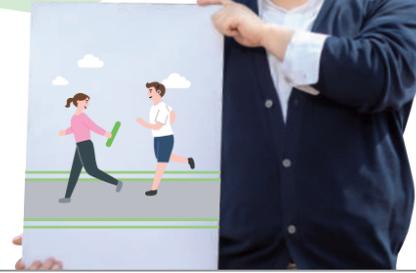
이태윤 • 저희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대학새마을동아리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각 대학교나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봉사입니다.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을 이뤄가다

박춘영 • 이태윤 부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부녀회도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대구 북구 검단동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갈지 궁금해지네요.

이심경 • 새마을정신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소중한 가치임을

선배 지도자분들께서 이뤄오신
것들을 저희가 이어갑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바톤 터치'다.



이심경
울산청년
새마을연합회장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새마을정신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개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그 가치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태윤 •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대학새마을동아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의 사례를 공유하거나, 직접 만나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김기호 • 우리 젊은 후배님들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합니다. 역시 새마을운동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죠. 함께할 때 진정한 힘이 생기고, 그 안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 55주년, 더 나은 내일을 그리다

이심경 • 원로지도자님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 저 역시 더 큰 의지와 책임감이 생깁니다. 새마을운동이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은, 앞선 세대의 선배님께서 보여주시신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윤 • 새마을운동은 저희 세대에게 참으로 큰 선물입니다. 앞

우리 사회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된 새마을운동은
'선물'이다.



이태윤
전국대학새마을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선 세대 여러분들께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이제 앞으로의 55년, 나아가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저희 세대가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영 • 이렇게 다양한 세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부녀회는 주로 협의회와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청년새마을연대와 대학새마을동아리와의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고 싶어요. 이런 세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것도 바로 '새마을운동'이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김기호 • 맞습니다. 후배 여러분들이 있어 오늘도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을 해오길 정말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주도해 펼쳐가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많은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삶터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거짓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치며 오늘 이 뜻깊은 만남을 마무리할까요.

"새마을운동 화이팅!" 🗣️

피해 복구를 넘어 일상 회복으로... 새마을운동, 산불 재난에 긴급 지원 나서

2025년 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3월부터 4월까지 전국을 휩쓴 불길은 생명과 자연, 문화유산까지 삼키며 재난의 참혹함을 드러냈다. 이 위기 속에 새마을가족들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 아래 긴급 구호와 복구 지원은 물론 재해 예방 캠페인까지 발 빠르게 전개하며 공동체 회복에 앞장섰다.

글. 편집실



경북 안동체육관에 도착한 긴급의류

동시다발 산불에 무너진 일상

2025년 봄, 경북 의성과 안동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대구 북구 등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된 불길은 마을과 주요 시설을 위협했고, 곳곳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심지어 문화재와 국립공원 등 국가적 자산들마저 화마의 위협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산불로 10만 4,00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됐고, 1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 818억 원에 이르렀다. 새마을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273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목숨을 잃고, 132명은 주택을 잃었다. 재산 피해를 입은 가족도 140명에 달한다. 특히 경북 지역의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안동 87명, 의성 73명, 청송 43명, 영양 9명, 영덕 49명 등 총 261명으로 피해가 집중됐고, 경남에서는 12명이 피해를 입었다.

2025 전국 산불 피해 규모

(2025. 4. 11. 기준)





이재민에게 전달할 김밥을 만드는 대구시부녀회



'재난극복형 모델'로 진화하다

산불 피해 회복을 넘어, 재건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원 활동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선 공동체 복원 운동으로 확장됐다. 전국의 새마을가족들은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연대력으로 피해 지역에 힘을 보탤고, 이는 새마을운동이 재난 극복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 12개 시도, 44개 시군구에서 총 3,105명의 새마을가족이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피해를 입은 12개소에 구호물품과 위로금을 전달하는 한편, 급식 봉사 등 현장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전달된 구호 물품은 총 2억 3,698만 원 상당이며, 이 중 4,716만 원은 이재민을 위한 위로금으로 직접 지원됐다.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세탁기 35대도 별도로 공급했다.

성금 모금 역시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중앙회와 시도새마을회가 주도한 이번 모금은 총 4억 6,544만 원에 달했다.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연대의 온기를 더했다. 여기에 약 22억 원 상당의 기부 의류 22,218점을 모아 피해 주민에게 전달했다. 이는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을 향한 진심 어린 응답이었다.

체계적인 복구 지원으로 일상 회복 견인

중앙회를 비롯한 시도새마을회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금은 지정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접수하며, 기부자들에게는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한다. 각 시도별 성금 모금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 지역에 필요한 물품과 긴급 구호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새마을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구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



2025 산불 피해지역 새마을운동 지원 현황



참여 지역 12개 시도, 44개 시군구
 참여 인원 총 3,105 명
 수혜 지역 12개소
 주요 내용 구호 물품 및 위로금 지원, 급식 봉사 등

(2025. 4. 11. 기준)

중앙회 시부녀회 등	수혜 지역 경북 내용 구호물품, 마스크 10만 장 지원 (2,000만 원 상당)	경기 도새마을회, 안양시·성남시	수혜 지역 경북 영양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내용 마스크 3만 장, 삼계탕 1,000개, 생수 2,280병, 양말 3,100개 지원
서울 시부녀회 등	수혜 지역 경북 안동시 내용 생필품 10,721점 (3,000만 원 상당) 지원	충북 청주시·충주시·제천시·진천군·괴산군	참여 인원 50명 수혜 지역 청송군, 충주시, 안동시, 영덕군, 진천군 내용 위로금 2,600만 원 전달
부산 시새마을회, 중구·기장군	참여 인원 33명 수혜 지역 경북 안동시, 영덕군, 경남 산청군 내용 청소 및 구호 물품(553만 원 상당), 세탁 차량 지원, 위로금 100만 원 전달	충남 도새마을회	수혜 지역 경북 안동시 내용 마스크 1만 장, 이불 300채 지원
대구 시새마을회, 군위군·남구·달성군·북구·서구·중구·달성군	참여 인원 113명 수혜 지역 경북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영덕군, 울산 울주군, 대구 달성군 내용 생필품(쌀, 김밥, 라면, 타올, 양말, 생수 등), 단팥빵 1,000개, 매트 1,500장, 빨래·청소 봉사, 위로금 총 9,000만 원 전달	전북 정읍시·무주군	참여 인원 50명 수혜 지역 전북 정읍시, 무주군 내용 식사 및 간식 125만 원 상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 생수(40만 원 상당) 지원
인천 시새마을회, 부평구·동구·서구·남동구·옹진군·미추홀구·중구·연수구	참여 인원 159명 수혜 지역 경북 청송군, 영덕군 내용 생필품(차약, 칫솔, 수건, 속옷, 이불 등), 이불 50채 (200만 원 상당), 식료품, 마스크 8,700장 지원	전남 도새마을회	수혜 지역 경남 내용 위로금 100만 원 전달
울산 시새마을회, 울주군	참여 인원 51명 수혜 지역 울주군 내용 간식, 빵, 음료 등 (1,200만 원 상당) 지원	경북 도새마을회, 의성군·안동시·울진군·구미시·문경시·영덕군·청송군·영양군·포항시·영천시	참여 인원 1,808명 수혜 지역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양양, 영덕, 울진 등 내용 식사, 세탁 차량 운영, 생필품(생수, 라면 등)(677만 원 상당), 산불 피해 과수원 정리, 위로금 1,700만 원, 속옷 954개 지원
경남 도새마을회, 산청군·하동군·창원시·사천시·함양군·거창군·합천군	참여 인원 842명 수혜 지역 경남 산청군, 하동군 내용 급식 및 설거지 봉사, 위로금 390만 원 전달 등		

젯빛 위에 피어난 녹색 희망

그림. 전선진

재난을 극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말보다 작은 실천임을,
새마을가족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재난의 아픔 속에서도 함께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미래를 위한 약속, 새마을과 함께하는 초록 교육

강원 속초시새마을회

‘웃음꽃 피는 속초시’, ‘살기 좋은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따뜻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4월 22일, 강원 속초시새마을회 회원들은 노학동 햇살마루어린이집을 찾아가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이날은 새마을의 날이자 지구의 날. 속초시새마을회와 미래세대가 만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나누 뜻깊은 시간이었다.

글. 임영현 사진. 전경민

→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미래세대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 펼쳐

4월 22일, 새마을운동에 동참하는 회원들에게는 무엇보다 뜻깊은 새마을의 날이자 지구의 날인 이날, 속초시새마을회 회원들은 햇살마루어린이집을 찾았다. 2022년부터 이어온 환경교육을 올해도 어김없이 펼치기 위해서다.

속초시새마을회는 지역축제인 설악문화제에서 일회용컵을 다육식물이 자라는 화분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 체험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부스를 찾은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하는 모습을 보며, 회원들은 ‘꿈을 키우는 나무’라는 의미로 우리 아이들을 ‘꿈나무’라 부르며 그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일회용 컵에 다육식물 심기’ 활동을 했다. 회원들은 버려진 일회용 컵을 하나하나 모아 정성껏 씻고 말려, 아이들이 사용할 준비를 마쳤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차례차례 흙을 담고, 그 안에 작고 귀여운 다육식물을 심었다. 흙 위엔 흰색과 새마을을 상징하는 녹색 자갈을 덮고, 아기자기한 토끼와 바섯, 선인장 장식을 꽃은 뒤 무당벌레 스티커로 마무리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자연분해까지 500년이 걸린다는 일회용 컵이, 아이들 손에서 특별한 화분으로 변신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어느새 웃음꽃을 피우며 활동에 몰입했다.

각 테이블마다 자리를 지킨 새마을회원들이 마치 손자, 손녀를 대하듯 따뜻하게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 도와준 덕분이다. 귀여운 아이들 얼굴에 무당벌레 스티커를 붙여주며 장난치는 회원들도 있어 교실은 한층 더 따뜻해졌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을 활용해 열쇠고리를 만드는 활동도 함께했다. 커피박을 몰드에 찍어내고, 화분 모양을 꾸미며 촉감 놀이와 색칠 놀이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 이 아이들 역시 자신만의 다육 화분을 완성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워갔다.

“웃음꽃 피는 속초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석 속초시새마을회장의 말처럼, 이날 활동 속에서도 아이들과 회원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아이들이 직접 심은 다육식물은 단지 식물 하나를 키우는 경험을 넘어, 지구에 대한 애정과 보호의 마음을 키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웃음꽃 피는
속초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일상 속 실천으로 피어나는 '환경 감수성'

속초시새마을회의 환경교육은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에 앞서 어린이집은 가정예 환경 교육 소식을 알리고, 라벨(포장지)이 붙은 투명 페트병을 준비해 보내달라고 안내했다. 이날 아이들은 준비해온 페트병을 활용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배웠다.

“페트병에서 병뚜껑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포장을 떼요. 페트병을 눌러서 부피를 줄여요. 그리고 여기에 담아볼까요?”

아이들은 실습을 통해 환경 보호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속초시새마을회는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교육은 부모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을 통해 ‘웃음꽃’을 피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는 ‘이야기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페트병은 이렇게 버려야 해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재활용해야 해요!” 환경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도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공유한다.

속초시새마을회의 교육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속초시가 목표하는 탄소중

립 실현에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과이자,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문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속초시새마을회의 활동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속초시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새마을이 필요하다.”

속초의 자연처럼 맑고 따뜻하게

속초시새마을회는 1984년 설립된 이래 줄곧 시민 곁에서 함께 숨 쉬어왔다. 현재는 속초시 8개 동에서 약 4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속초의 자랑을 묻자, 주저할 틈도 없이 회원들의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설악산, 영랑호, 청초호, 속초호 등 천혜의 자연환경도 있지만, 무엇보다 속초시 새마을운동이 가장 큰 자랑거리죠.”

“새마을은 국가이고, 곧 나라사랑입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소명 의식을 지닌 김강석 회장은 2024년 제17대 속초시새마을회장으로 취임했다. 그해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그는 속초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다.

“속초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인 만큼, 해수욕장을 비롯한 해

안가의 해양 쓰레기 수거, 영랑호·청초호·하천변의 자연정화 활동, 농약병 수거 등 지역에 맞춘 환경활동을 앞으로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속초시새마을회의 대표 활동 중 하나는 앞서 소개한 환경교육뿐 아니라, 2022년부터 속초시부녀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정성껏 세척해 다시 포장한 뒤, 아이스팩 수요가 많은 시장 상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이미숙 부녀회장은 “겨울에는 언 손을 녹여가며 아이스팩을 씻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회원들의 열정을 떠올렸다. 이 같은 노력을 알아본 속초시자원봉사센터는 별도의 작업장을 마련해 지원에 나섰고, 현재는 지역 곳곳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추가 설치해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아이스팩 선별, 세척, 건조, 나눔은 주 단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탄소중립 실천과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책으로 자리잡았다.

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수거한 폐자원을 자원화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 수익금은 다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으로 환원되며, 탈플라스틱 탄소

중립 도시 속초를 향한 여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18년째 새마을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미숙 부녀회장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업을 소개했다. 바로 ‘홀몸노인 사랑잇기’ 사업이다. “강원도부녀회의 중점 사업이기도 하지만, 속초만의 따뜻한 정서를 담아, 며느리의 마음처럼 다정하게 어르신을 보살피는 활동입니다.” 속초시새마을회는 이처럼 탄소중립과 공동체 중심의 따뜻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도 연대협력을 강화하며,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지고 있다. 지역 축제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알리기 위한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는 중이다.

속초시새마을회의 움직임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연을 지키고, 이웃과 함께하며, 일상 속에서 작지만 값진 실천을 쌓아가는 속초시새마을회.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속초는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된다. 내일의 속초시새마을회는 또 어떤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갈까? 🌱



“청년이 전한 생신 선물, 마음까지 따뜻해진 날”



충북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던 지난 4월 23일, 충북 괴산군 칠성면 두창2리 경로당에 따뜻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가 마련한 ‘생신 축하드려쵸, 경행(敬行)새마을운동’ 생신잔치 덕분이다.

푸짐한 생신상과 회원들이 손수 고른 정성스런 선물, 족욕과 네일 서비스까지. 어르신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던 다채로운 경험이 선물처럼 다가왔다. 잔잔하지만 깊은 감동이 웃음 속에 스며들며, 따뜻한 하루가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글. 윤민지 사진. 김상준



Q. 안녕하세요,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를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 2대 회장을 맡고 있는 정승환입니다. 저희 연대는 2023년에 설립된, 괴산군의 젊은 힘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17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인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봉사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분들로 신중히 구성한 팀입니다. 회원들의 배경도 참 다채롭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간호사,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같은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연대는 녹색새마을, 건강새마을, 문화새마을 등 세 분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는 분기마다 전체 회의를 열어 활동 방향을 정하고, 매달 활동을 점검합니다. 최근에는 충청북도와 괴산군에서 주최하는 공모 사업에도 참여하며, 지역과의 연결 고리를 더욱 넓혀가고 있어요.

Q. 오늘 진행하신 ‘생신 축하드려쵸(효), 경행(敬行)새마을운동’이 무척 따뜻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괴산군은 현재 인구가 약 3만 6,000명 정도인데, 그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42%에 달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타지로 떠난 뒤 홀로 지내시거나, 마을 분들과 소소하게 일상을 함께하며 살아

가고 계시죠.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는 충북청년새마을연합회, 충청북도새마을회, 괴산군새마을회와 함께 ‘경행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행동으로 실천하자’는 경행(敬行)의 정신 아래, 마을 어르신들의 생신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새마을회의 ‘행복나눔 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고, 칠성면 두창마을 어르신 다섯 분을 위한 작은 생신 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단순히 선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정한 말동무가 되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모여 탄생한 자리였죠.

Q. 생신상 차려드리기부터 미용 봉사, 네일아트, 족욕 마사지까지.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정말 다채로웠는데요. 오늘 하루 중 가장 마음에 깊이 남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많은 장면들이 기억에 남지만, 특히 족욕 봉사를 하던 중 한 어르신께서 해주신 말씀이 마음에 크게 울림을 줬습니다. “우리 아들도, 남편도 이런 거 안 해줬는데...” 하시며 발을 담그고 계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순간 멈춰있어요. ‘나는 과연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의 발을 정성껏 씻겨드린 적이 있었나?’ 하고요. 그 순간, 단순한 봉사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발을 씻어드리고, 따뜻한 물로 피로를 덜어드리는 그 시간 속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 꼭 어머니의 발을 한 번 씻겨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봉사의 모습보다는, 진심이 담긴 마음의 교류가 훨씬 더 소중한다는 걸 새삼 느꼈던 순간이었죠.

Q.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는 오늘 행사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가슴 벅찼던 성과와 최근 중점적으로 진행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가장 애정을 갖고 진행한 사업 중 하나는 바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활동이에요. 농촌에서는 흔히 소각하던 부산물을 갈아 친환경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이죠. 단순히 농가를 도운 것을 넘어, 화재를 예방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많은

요청을 주셔서, 겨울철 영하 16도에 이르는 혹한 속에서도 팀을 나눠 농가 곳곳을 찾았어요. 2025년에는 괴산군으로부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사업 예산으로 1억 500만 원을, 충청북도에서는 청년 도정 참여단 사업으로 400만 원을 수주하게 되었어요. 자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사업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6시 내 고향>을 비롯한 TV 방송 출연과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해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어요. 저희 회원들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축제위원회, 청년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괴산군의 새마을운동” 하면 누구나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를 떠올릴 만큼, 지역사회에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합니다.

Q.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는 젊은 청년층과의 협업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중원대학교 새마을동아리와 함께 MZ새마을운동을 추진 중이라고요. 젊고 활기찬 새마을운동이 기대되는데요, 대학새마을동아리와 함께 하고 있는 활동들도 소개해 주세요.

지난해부터 중원대학교 새마을동아리와 함께 ‘MZ새마을운동’을 시작했어요. ‘괴산빨간맛페스티벌’ 기간에는 대학생들과 함께 부스를 운영하면서, MZ세대에게 새마을운동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알렸습니다. 또 중원대 축제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어요. 일회성이 아닌,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와 대학 새마을동아리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마치 한 팀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젊은 에너지가 괴산군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괴산군청년연합회 회장을 함께 맡고 있어서, 중원대학교 총학생회, 새마을동아리 학생들과 다양한 청년 활동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대 간호학과에서는 무려 4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새마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고요.

Q. ‘한부모 가정 대상 쌀 기부’, ‘릴레이 기부’ 등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펼치는 다양한 봉사활동도 인상 깊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읍면사무소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아 20kg 쌀 10포대를 준비해 직접 가정마다 전달했어요. 그때의 마음이 참 오래 남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기부를 계속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고요. 괴산군은 11개 읍면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각 지역에서 경로잔치나 행사가 열릴 때 회원들이 직접 휴지 한 상자라도 사서 진심을 담아 스스로 참여해요. 그리고 이번 봄, 경북과 경남 지역에 대형



←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뒷줄 왼쪽부터)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 이정훈, 김지은, 정승환(회장), 정유진, 김우중, 이창형

(앞줄 왼쪽부터) 두창2리 경로당 어르신 김옥련(72), 민옥순(78), 김종순(92), 최오순(79), 유정화(72)

산불이 났을 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아 100만 원을 마련했고, 괴산군 새마을단체장님들과 함께 지난 4월 18일에 안동시에 총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Q.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는 모든 회원이 봉사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생업이나 육아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를 처음 만들 때,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봉사에 진심인 분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봉사’라는 공통된 마음이 있어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이유죠. 회원들 모두가 참 따뜻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Q. 정승환 회장님께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배우자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평생의 짝을 만나게 된 특별한 인연이네요. 부부가 함께 새마을운동을 하며 느끼는 좋은 점도 궁금합니다.

새마을운동은 저에게 운명처럼 찾아왔어요. 아내는 예전부터 누나, 동생으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에서 함께 활동하며 마음이 가까워졌고, 결국 지난 3월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아내가 저의 외부 활동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모습보다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조언도 많이 해줍니다. 아내는 16년 차 간호사인데, 특이하게도 저희 연대에는 간호사 출신 회원들이 꽤 많아요.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타인을 돌보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봉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새마을운동과도 잘 맞는 것 같아요.

Q.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가 앞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현재 괴산군새마을회와 함께 청년새마을연대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에요. 지난 2월, 충청북도에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괴산군에서도 조례가 활성화된다면 청년 새마을운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청년들의 패기와 열정을 믿어요. 진심을 담아 꾸준히 활동해나간다면,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괴산군에서 열리는 축제나 행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가 중심이 되어 봉사하고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에요. 저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괴산군을 더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숨 쉬며 성장해가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가 만드는 변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2년 차 국가 탄자니아

지난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탄자니아와 잠비아에서 온 마을 지도자와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사례와 전략을 배우고 각국의 현장 경험을 나누며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의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 2년 차를 맞은 탄자니아의 시범마을 4곳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저수지 건설, 공중 화장실 설치, 식수 사업 등이 추진되며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 카토르 주마 카토르 새마을지도자는 “마을 주민의 인식 전환이 변화를 이끌어 냈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글: 윤민지 사진: 김병구

새마을지도자
[카토르 주마 카토르]



Q 탄자니아에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지도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팜바섬의 지니윙기 마을에서 온 카토르 주마 카토르입니다. 새마을지도자로 일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발전한 모습을 보며 우리 마을도 한국처럼 잘사

는 마을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새마을지도자가 되었습니다.

Q 새마을운동 시작 후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주민들 사이에 생긴 협동심이에요. 예전

에는 사람들이 일을 대충 하거나 단합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주민들의 생각이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Q 시범마을을 이끌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가장 어려웠던 건 단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왜 해야 하나”는 반응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새마을운동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계속 알리고, 작게라도 성공한 결과가 있으면 마을 주민들과 나누며 동참을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하나둘 생기자 사람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어요.

Q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작년부터 공중 화장실 건립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희 마을은 아직도 많은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오랫동안 수인성 질병과 위생 문제

가 꽤 심각했거든요. 작년부터 공중 화장실을 짓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도 공중 화장실을 꾸준히 늘려 더 깨끗하고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Q 이번 초청 연수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강의나 활동이 있다면요?

사실 딱 하나만 골라서 “이 강의가 제일 좋았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연수 프로그램 대부분이 우리 마을 현실과 맞닿아 있어서 정말 유익했거든요.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 연결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We can do it!”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우리 사람들도 변할 수 있고, 그 변화는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로서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저희 마을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p>★ 주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000L 규모 농업용 저수지 확보 → 2개 저수지 정비, 물탱크 6개 설치 중 • 농지, 종교 시설에 전력 공급 → 전봇대 2개 설치, 전선 14km 연결 <p>♥ 주민 참여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마을 주민 30명씩 총 200명 자발적 참여 	<p>★ 주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 화장실 6곳 보수, 10곳 신규 완공 → 매년 20여 명 발생했던 수인성 질병 감염자가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0명 <p>♥ 주민 참여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 체계적인 기록으로 활동과 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
<p>★ 주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만 L 규모의 식수 탱크 2개 설치 → 마을 전역에 1.8km 파이프라인 연결 <p>♥ 주민 참여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개발위원회와 새마을 조직(부녀회, 청년회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 • 시범마을 사업에 마을 주민 전원 참여 	<p>★ 주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시장 개설 → 수산물 판매, 물품 정비 및 대여, 사업 관리 사무소 <p>♥ 주민 참여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75% 이상이 시범마을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

작은 변화가 큰 희망으로 공동체가 스스로 만든 희망 이야기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3년 차 국가 잠비아



2023년, 잠비아의 네 마을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로 선정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진심 어린 참여가 어우러지면서 마을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의료인을 위한 주택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마을회관이 생겨났다. 깨끗한 물을 위한 식수원도 새로 마련되며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함께하면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낸 이들이 있었다. 펠리스터스 무카 무부과누 지역개발복지부 공무원에게 성공적인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들었다.

글. 윤민지 사진. 김병구



지역개발복지부 공무원 [펠리스터스 무카 무부과누]

Q 현재 소속과 지방정부 공무원으로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지역의 특징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잠비아 지역개발복지부 소속으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취약계층의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입니다. 또 주민 스스로 마을을 바꿔 나가도록 돕는 ‘자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을에 다리가 필요하다거나, 집이나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직접 그 필요를 느끼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을이 단순히 외부의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Q 카퓌에 군(샤콜라 마을, 음와치비아 마을)과 치칸카타 군(난두바 마을, 난생가 마을)에 왜 새마을운동이 필요했을까요?

카퓌에 군과 치칸카타 군은 잠비아 내에서도 빈곤율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 지역의 빈곤율이 나아질길 기대했고 실제로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에는 가뭄이 특히 심각해서 농사조차 힘든 상황이었고, 수확은 거의 전무했죠. 이런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개발사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잠비아 정부는 이 상황을 국가 재난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덕분에 저희도 새마을운동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정부와 마을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게 가장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Q 시범마을 3년 차,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지난 4월 14일, 난두바 마을에 있는 병원 인근에 의료진을 위한 주택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이전에는 의료진이 멀리서 통근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더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난생가 마을에는 식수용 우물 3개가 새로 생겼어요.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물을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함께 이룬 가장 큰 성과입니다.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변화였기 때문에 더욱 뜻깊습니다.

Q 이번 초청연수 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시범마을에 적용할 만한 사업도 있었나요?

공무원으로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회의 운영 방법을 배

우고 나서, 돌아가면 어떻게 지역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명확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또한, 난생가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카퓌에 군에서도 올해 안에 여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기대가 큼니다.

Q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요?

프로젝트를 마치고 마을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직접 전달하던 날이 잊히지 않아요. 모든 주민이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는 미소가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요. 정말 보람 있었습니.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이런 희망의 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고 싶습니다.

Q 끝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새마을운동은 단지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고 마을을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상상 이상으로 큰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서로 손잡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

<p>★ 주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0㎡ 규모 마을회관 → 1개의 회의실과 사무실, 남·여 화장실을 각 3개 설치할 예정 <p>♥ 주민 참여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주민 2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 그룹별로 마을기금 운영, 약 6,000과차(약 230달러) 적립 	<p>★ 주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시설 개선 → 300㎡ 규모 마을시장 건설, 마을 안길 2km 이상 포장 <p>♥ 주민 참여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건설 사업에 자발적 참여 • 월 1회 마을 총회에 500~600명 참여 • 마을기금 9,000과차(약 340달러) 적립
<p>★ 주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 사택 건설 → 간호인력 3가구의 거주 공간 마련해 24시간 의료 서비스 제공 예정 → 사택 임대료는 마을기금으로 활용 예정 <p>♥ 주민 참여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75%가 자발적으로 참여 • 마을기금 1만 6,000과차(약 608달러) 적립 	<p>★ 주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수원 3개소 건립(식수 탱크 5,000L) → 시설당 30가구 이용 가능 <p>♥ 주민 참여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수사업지 건설에 주민 자부담으로 4,500과차(약 171달러) 기부 • 주민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 마을기금 4,500과차(약 171달러) 적립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 새마을가족의 마음이 푸른 숲을 이루다



협의회

새마을정신을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박용운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박용운 회장의 따뜻한 마음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모두가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도농 교류 사업에 힘쓰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지난겨울에는 연탄 배달 봉사를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등 새마을정신을 알리고 실천하는 데 남다른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회장님께서 많은 이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From_ **변봉남**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먼저 지난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새마을기념장’을 수상하신 변봉남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께도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변봉남 회장의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경중 삼아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경주하겠습니다.”

_ **박용운**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장



직장·공장협의회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이창 충청남도 서산시 직장·공장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이창 회장님께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맞춘 봉사활동을 통해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봉사, 어르신 이미용 봉사, 네일아트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회장님의 헌신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From_ **김상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직장·공장협의회장



“김상일 회장의 칭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직장·공장 충남 서산시협의회가 더욱 지역사회와 상생하도록 모든 일에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이창** 충청남도 서산시 직장·공장협의회장

부녀회

지역과 국경을 넘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곽영순 경상남도새마을부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곽영순 회장님께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눔과 봉사활동에도 앞장서며 국제적으로도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스 해외협력사업 때 사비로 마련한 학용품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천다짐’ 행사 등을 통해 가족공동체 문화 회복에 힘쓰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더욱 빛나는 활동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From_ **조동희** 서울특별시부녀회장



“조동희 서울시부녀회장의 과분한 칭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과 선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회장의 칭찬에 힘입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과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_ **곽영순** 경상남도부녀회장

문고

항상 강원도의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찬윤 문고 강원특별자치도지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강원도의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고 나눔을 실천하시는 김찬윤 회장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지역 사회 발전에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새마을운동이 발전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독서문화 발전과 확산을 위해 더욱 빛나는 활동을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From_ **김준연** 문고 경상북도 예천군지부회장



“새마을운동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다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알려주시니 부끄럽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잘될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강원도의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_ **김찬윤** 문고 강원특별자치도지부회장

청년새마을

성실한 자세와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진
김종현 세종청년새마을연합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온화하면서도 묵직한 매력의 소유자이자, 세종시 청년연합회를 이끄는 김종현 회장은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김종현 회장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힘을 얻는 중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대학새마을동아리도 두루두루 잘 살피는 김종현 회장을 칭찬합니다!

From_ **인희열** 충청남도 청년새마을연합회장



“인희열 충남 청년새마을연합회장의 칭찬을 우리 세종새마을연합회의 모든 구성원을 향한 칭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받은 만큼 앞으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활동해 중부 지방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열정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뜨거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_ **김종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연합회장

대학새마을

즐길 때는 즐기고, 새마을운동을 할 때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곽해주 부산가톨릭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님을 칭찬합니다.

부산에서 대학새마을동아리들의 연합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곽해주 부산가톨릭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새마을회 사무처와 각 동아리 회장단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잘해주시고, 무엇보다 빠트리지 않는 섬세함으로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고 있습니다.

From_ **공채영**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해준 신라대 공채영 회장님께 감사합니다. 지난해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과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 더 열심히 새마을운동을 통해 좋은 일들을 이뤄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_ **곽해주** 부산가톨릭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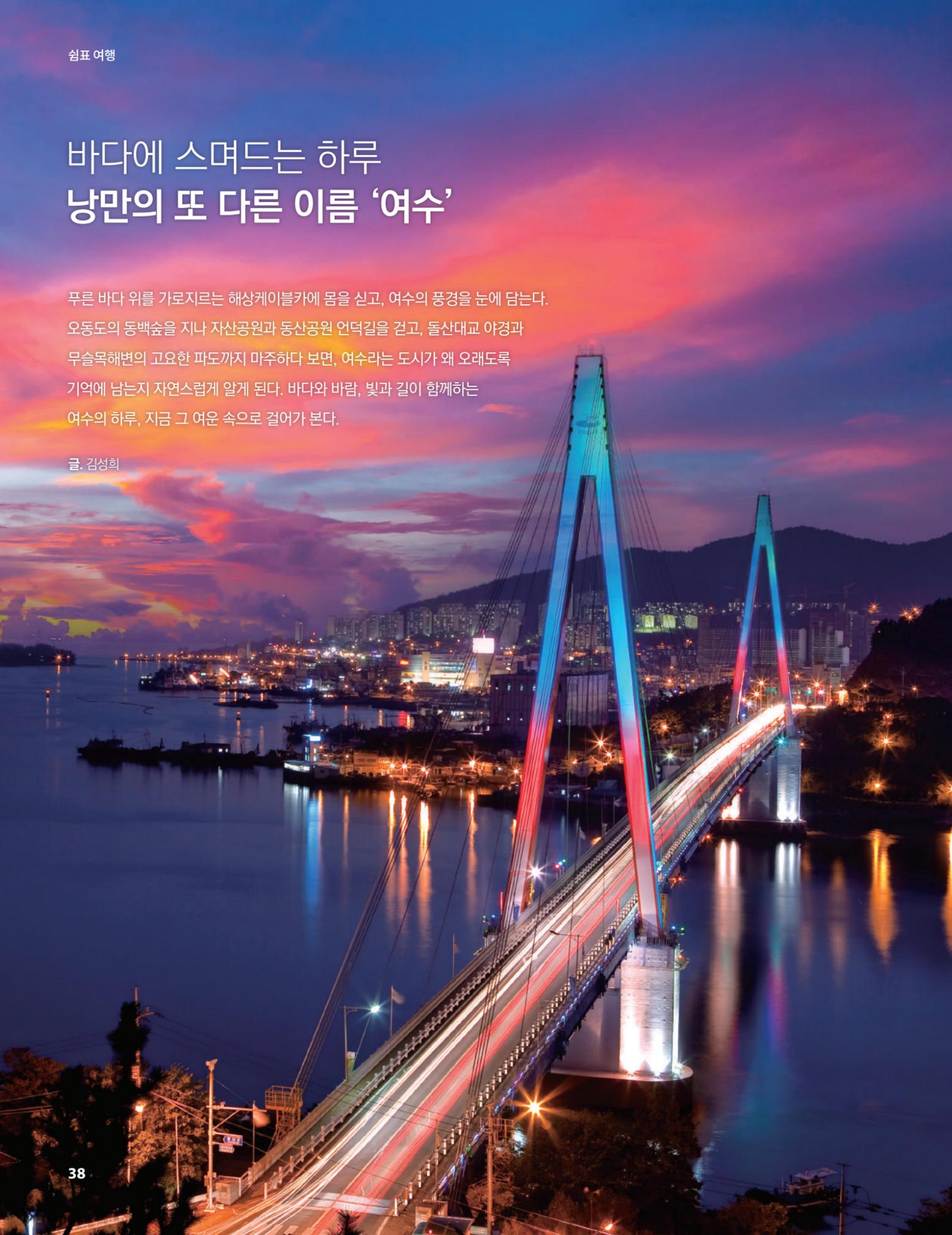


새마을가족의 칭찬 릴레이는
다음호 (새벽중)으로 이어집니다.

바다에 스며드는 하루 낭만의 또 다른 이름 '여수'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에 몸을 싣고, 여수의 풍경을 눈에 담는다. 오동도의 동백숲을 지나 자산공원과 동산공원 언덕길을 걷고, 돌산대교 야경과 무슬목해변의 고요한 파도까지 마주하다 보면, 여수라는 도시가 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바다와 바람, 빛과 길이 함께하는 여수의 하루, 지금 그 여운 속으로 걸어가 본다.

글. 김성희



푸른 바다를 건너는 첫 여정 '여수 해상케이블카'

여수 여행의 첫 장소로 동양 최초의 해상케이블카인 여수 해상케이블카를 추천한다. 자산공원과 돌산공원을 잇는 약 1.5km의 구간을 바다 위로 가로지르며, 여수 앞바다의 풍경을 가장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준다. 발아래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 멀리 이어지는 돌산대교, 오밀조밀한 항구와 유람선들 그리고 저 멀리 실루엣만 보이는 섬까지 한눈에 담기 어려운 여수의 전경을 가장 압도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유리 바닥으로 설계된 '크리스탈 캐빈'에 오르면 진짜 하늘을 나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이색적이다. 아래로 보이는 바닷물과 케이블카 그림자, 지나가는 배의 움직임까지 그대로 보이면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케이블카는 해가 저무는 시간에 특히 매력적이다. 서서히 붉게 물드는 여수의 하늘 아래 야경으로 빛나는 도시의 불빛과 바다의 어스름이 어우러지며 완전히 새로운 장면이 펼쳐진다. 한 도시의 자연과 구조, 매력을 가장 높은 시점에서 연결해 주는 케이블카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여수 여행의 하이라이트다.



섬과 숲, 도심이 어우러진 '오동도 & 자산공원'

오동도는 섬의 생김새가 오동나무 잎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 안에 담긴 풍경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동백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나뭇잎 사이로 바다 내음이 스며들고, 곳곳에 놓인 전망대와 용굴, 등대는 오동도의 매력을 하나씩 발견하게 만드는 풍경 포인트다. 오동도는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마치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듯한 섬이다. 여수항에서 오동도 입구까지는 시원하게 뻗은 방파제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바다를 보며 산책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오동도와 연결되는 언덕길에는 자산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자산공원은 여수 시내와 항구, 바다, 돌산대교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뷰 포인트로 유명하다. 오동도에서 산책을 마치고 다시 자산공원으로 올라서면, 조금 전까지 걸던 오동도와 여수 앞바다가 멀리 그림처럼 펼쳐진다. 이곳에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탑승장도 함께 있어 도보와 공중을 넘나드는 여수 여행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불빛이 흐르는 밤의 산책로 '돌산공원 & 돌산대교'

여수 밤바다를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꼽으라면 단연 돌산공원과 돌산대교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천천히 언덕을 오르면 돌산공원의 정점에서 여수 시내와 바다가 서서히 붉게 물드는 광경을 마주하게 된다. 케이블카가 종착하는 이곳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공간이다.

돌산공원은 야경을 품은 공원이다. 낮에는 여수항을 중심으로 펼쳐진 항구 도시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고, 밤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가장 눈길을 끄

는 것은 단연 돌산대교. 섬과 육지를 잇는 이 다리는 여수의 상징과도 같고, 밤이면 다채로운 색의 조명이 다리를 따라 흐르듯 켜지며 바다 위에 빛의 물결을 만든다. 이 장면은 돌산공원 전망대에서 가장 또렷하게 보인다. 돌산대교 아래쪽 해변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도 여수 여행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밤 바다를 따라 불빛이 흔들리고, 케이블카가 머리 위를 지나며 바다 위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바람은 선선하고, 주변은 차분하다. 잠시 걷기만 해도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고요함 속에 머무는 시간 '무슬목해변'

북적이는 관광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찾고 있다면 무슬목해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수 울촌면에 위치한 이 해변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적고 조용한 공간이다.

무슬목해변은 자갈과 모래가 함께 섞인 백사장으로 이뤄져 있다. 넓지 않은 해변이라 걷기에 부담이 없고, 적당한 고요함이 주변을 감싼다. 해수욕장이 아닌 만큼 편의시설은 없지만, 그 점이 오히려 이곳의 정체성을 말해준다. 조용히 걷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며 머물기 좋은 장소다.

볼거리 많은 여행지와 다르게 무슬목은 다소 심심할 수도 있지만, 하루쯤은 소란스러운 여행지에서 벗어나 보는 것도 필요하다. 작은 돛자리와 도시락, 혹은 책 한 권이면 이곳에서의 하루는 충분히 알차다. 해 질 무렵에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며 차분한 정서를 더해준다. 🌅



취향 따라 고르는 여행 코스 PICK

📍 여수 밤바다 감성 산책 (밤바다의 낭만)

이순신광장에서 시작되는 해안 산책로는 종포해양공원까지 이어지며, 바다 전망이 탁월하고 코스도 평탄하다. 저녁이 되면 조명이 켜져 여수 밤바다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명소다. 산책로 끝에는 여수해양레일바이크 탑승장이 있어, 잠시 머물며 바다를 감상하기에도 좋다.



📍 돌산 전망 산책 코스 (하늘과 바다를 걷다)

자산공원에서 시작해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위를 건너면, 목적지는 돌산공원이다. 돌산공원에 도착하면 여수 시내와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이 기다린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돌산대교가 가까워지고, 붉은 노을 아래 펼쳐진 다리와 바다 풍경이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 여수 역사, 전통시장 도보 탐방 (골목에 스민 시간)

조선 수군의 본영이었던 진남관을 구경하고 걸어서 서시장에 도착하면 시장의 활기와 냄새, 여수 계장과 해산물의 유혹이 발걸음을 붙잡는다. 배를 채운 뒤엔 고소동 벽화골목으로 향한다.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 곳곳에 색색의 벽화와 예쁜 창문이 숨어 있다.



진화하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품이라고 말하는 스마트폰. 물건을 사는 것부터 길을 찾거나, 건강 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등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융 사기 범죄의 증가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동반하고 있다. 특히 정교한 시나리오와 심리적 압박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한 뒤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사용자를 속이고 피해를 주는 ‘스미싱(Smishing)’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수법과 예방법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목소리 뒤에 숨은 검은 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결합한 용어로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사기범들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한다. 특히 전문용어를 사용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하게 하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상으로 직접적인 자금 이체나 민감한 금융정보 전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특히 동정심이나 걱정하는 마음을 악용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 자녀나 친척의 목소리로 변조해 ‘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휴대폰이 고장

나서 그러니 일단 이 번호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때 반드시 통화를 끊고 기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의 함정 ‘스미싱’ 예방과 대처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Smishing)’ 범죄 또한 고령층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스미싱은 악성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대량 유포해, 해당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러한 문자에 속아 링크를 클릭하면, 심각한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모바일 청첩장] 저희 자녀가 결혼합니다’ 또는 ‘[부고 알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와 같은 문구와 함께 악성 인터넷 주소(URL)를 첨부하여, 마치 가까운 지인이 발송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무심코 해당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것이다. 택배 배송 관련 문자를 사칭하는 경우 또한 매우 흔한 유형이다. ‘고객님, 주문하신 택배가 배송 지연 중입니다. 배송 일정을 확인하십시오’라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반송될 예정입니다. 주소지를 수정하십시오’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한다. 이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화면으로 연결되

거나, 사용자 모르게 악성 앱이 휴대폰에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악성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저장된 모든 연락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심지어 은행 거래에 필요한 민감한 금융 정보까지 탈취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선 단순히 경각심을 가지는 것 외에도 철저한 스마트폰 방어가 중요하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와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 기능은 반드시 비활성화하고, 애플리케이션은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디지털 생활 수칙

고령층이 스마트폰이나 금융 앱에 익숙하지 않다면, 주변 가족이 관심을 두고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어르신 휴대폰에는 악성 앱 탐지 기능과 백신 앱 설치, 스마트폰 업데이트 도와드리기

2. 자주 연락드리며, “어떤 전화나 문자를 받으셔도 바로 송금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기

3.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을 때 대처법’을 종이에 적어 집 전화기 옆이나 냉장고에 붙여두기

철저히 준비해서 피해 예방하기

‘시티즌코난’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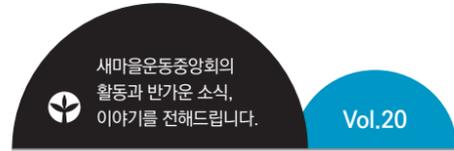
경찰청이 민간과 함께 개발하고 배포하는 악성 앱 및 의심 전화번호 탐지 앱이다. 실시간으로 악성코드를 탐지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자주 사용되는 전화번호와 문자 패턴을 식별해 위험을 미리 피하도록 돕는다. (안드로이드만 가능)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웹사이트

보이스피싱의 정의와 주요 유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사기 과정의 녹음 파일을 들어볼 수 있고, 경북경찰청에서 제작한 ‘메신저 피싱 체험관’을 통해 보이스피싱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중앙회

영남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성금·물품 전달 및 봉사

중앙회가 전국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영남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중앙회는 전국 12개 시도·31개 시군구새마을(지)회 소속 지도자 2,600여 명과 협력해 이재민들에게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대피소 내 세탁·청소·배식 봉사 등에 참여하며 복구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27일, 전국 새마을(지)회를 대표해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2,0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즉석식품, 생수, 라면, 마스크 등)과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어 4월 1일에는 국민일보와 (주)신원이 기증한 20억 원 상당의 의류 2만 5,000점을 경북 5개 지역(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과 경남 2개 지역(하동·산청)의 이재민 3,000여 명에게 지원했다.



파푸아뉴기니 초청 새마을교육

중앙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17일까지 파푸아뉴기니 지방정부 공무원 및 마을지도자 22명을 초청해 '지속 가능한 지구촌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연수는 2024년부터 4개 시범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사업을 시작한 파푸아뉴기니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 공유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새마을운동의 이해, 시범마을 사업 추진 전략, 주민 조직 및 지도 역량 강화, 소득 증대 사업 발굴 등 필수적인 이론 교육을 받았다. 또 시범마을 모범 사례를 집중적으로 공유했고, 현지 에 맞는 사업 계획 수립과 주민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탄자니아·잠비아 초청 새마을교육

중앙회는 아프리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탄자니아와 잠비아의 공무원 및 마을지도자 등 47명을 초청해 새마을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추진 중인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각국의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부룬디와 우간다에 파견된 새마을협력관들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함과 동시에 탄자니아, 잠비아 참가자들과 아프리카 현지에서의 새마을운동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호 학습 효과를 높였다.



나이지리아 상원의원 내방

지난 4월 24일 유누스 아킨툰데(Yunus Akintunde) 나이지리아 상원의원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김성호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아킨툰데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한국의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농촌 발전에 기여한 점에 주목하며, 새마을운동의 성공 철학과 구체적인 추진 사례, 국제협력 경험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개발 및 빈곤 퇴치 경험을 나이지리아와 공유해 줄 것을 중앙회 측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김성호 사무총장은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 정신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 경험이 나이지리아의 농촌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산불 피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서울시협의회(회장 윤종희)는 지난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캄보디아 캄퐁크라베이 마을에서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윤종희 회장과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각 구 협의회장, 사무직원 등 새마을지도자 27명은 현지에서 유치원과 공중 화장실 건립을 지원했고, 새마을 조끼, 학용품 등 물품을 전달했다. 부녀회(회장 조동희)는 지난 4월 3일 대구모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서울시부녀회와 25개 자치구 부녀회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한 생필품 등으로 구성됐다.



부산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이기·탄소중립 현장강사 양성

부산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금정구민운동장과 강서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상반기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이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의류, 가방, 신발 등 약 120톤을 수거했다. 수거된 물품은 재활용되거나 해외로 수출되며, 수익금은 전액 부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사업 기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지난 3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시새마을회관에서 대학새마을 동아리연합회 및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현장강사 양성 과정'이 운영됐다.



대구 EM흙공 만들기

대구시협의회(회장 김수현)와 부녀회(회장 박명숙)는 지난 4월 12일 새마을회에서 친환경 수질 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EM흙공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28명과 새마을지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EM흙공 3,000개를 빚었고, 흙공은 발효 과정을 거친 뒤 대구의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투척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구·군에서도 자체적인 하천 정화 활동 계획에 따라 별도로 흙공 투척을 진행할 방침이다. 협의회와 부녀회는 대표적인 친환경 수질 정화 사업으로 EM흙공 만들기 및 던지기를 8년째 이어오고 있다.



인천 새마을의 날 기념식·일일찾집 운영

인천시새마을회(회장 이황일)는 지난 4월 17일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인천시 정무부시장, 새마을지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고, 새마을운동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도자 및 지회에 대한 표창과 30년 이상 근속 새마을지도자에게 기념장이 수여됐다. 한편 부녀회(회장 황금덕)는 지난 3월 25일 새마을회관에서 소외계층 복지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찾집'을 진행했다. 이는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시민과 새마을가족들이 참여해 기금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주 녹색 새마을 가꾸기

직장·공장 광주시협의회(회장 이명식)가 환경보호 및 탄소 중립 실천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협의회는 목송그룹 내에 새마을 알뜰장터를 개설해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평화의 숲'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을 통해 탄소 중립 운동에도 참여 중이다. 특히 목송그룹 내 4개 팀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는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4월 26일에는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트레일레이스 대회에 4개 팀 모두 참가해 새마을운동 홍보 활동을 벌였다.



대전 '동전의 기적' 통해 1,748만 원 모금

대전시협의회(회장 이경원)는 지난 3월 11일 시새마을회 대회의실에서 '힘찬 동행, 동전의 기적' 동전 모이기 운동의 집합 및 계수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집계된 동전은 대전시 5개 구 82개 동에서 모은 총 112포대 분량으로, 계수 결과 약 1,748만 원 이 모금됐다. 해당 금액은 각 구와 동 단위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불우이웃 돕기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경원 회장은 "무관심 속에 방치된 동전이 이처럼 큰 금액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지도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울산 식목일 나무심기 운동

울산시부녀회(회장 김숙자)는 지난 3월 25일 울산 남구 옥동 일원에서 열린 '제80회 식목일 기념 시민 참여 나무심기'에 참여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도심 미관 개선,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부녀지도자 40여 명을 포함해 지역 민간단체와 기업체 임직원 등 35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편백나무 2,350그루를 울산대공원 인근에 심으며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다. 김숙자 회장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일"이라며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세종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세종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는 지난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특별사업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1,000여 가구에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14개 읍면동새마을회가 각 1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했으며, 열무김치, 파래무침, 파리고추볶음 등 봄철 입맛을 돋울 수 있는 반찬으로 구성했다. 김영제 회장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신선한 제철 먹거리로 건강한 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다"라며 사업 취지를 밝혔다.



경기 직장·공장 경기도협의회, 오세덕 신임 회장 선출

직장·공장 경기도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시군회장 및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오세덕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오세덕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시·군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포용적 협의회 운영 △'함께 새마을, 미래로·세계로'를 비전으로 한 청년 참여 확대 및 녹색·건강·문화 중심의 새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시·군 조직 구성 △회원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원 '희망노(老)을' 발대식

강원도부녀회(회장 전미용)는 지난 4월 25일 강릉어울림플랫폼에서 '2025년 희망노을' 사업 발대식 및 교육을 열고 '따뜻한 관계의 위로, 치유를 통한 행복한 삶'을 주제로 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발대식에서 전미용 회장은 "생활 밀착형 돌봄 사업 추진으로 고령화 사회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홀몸 어르신에게 건강과 희망을 나눠주시길 바란다"며 봉사자들의 책임감 있는 활동을 당부했다. '희망노을' 사업은 앞으로 도내 권역별 발대식과 교육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다.



충북 캄보디아 마을회관 신축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가 지난 4월 2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마을회관 건립 착공식을 열고 2025년 캄보디아 앙랑락마을에 다목적 커뮤니티 마을회관 신축 사업 추진을 알렸다. 이날 착공식에는 우태군 협의회장, 광명순 부녀회장 및 도내 14개 시군 협의회장 부녀회장 등 회장단이 참석했고, 현지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학용품, 의약품, 수건 등 물품을 전달했다. 우태군 협의회장은 "이번 마을회관 건립 사업이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9,000그루 나무심기·새마을부녀회 봉사대상 사례발표 대회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성낙구)는 제15회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 지난 4월 3일 예산군 봉산면 청년나눔농장에서 소나무 묘목 9,000그루를 심었다. 이번 나무심기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특히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산림 복구를 지원하고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부녀회(회장 박숙희)는 지역 사회 리더십 강화와 모범적인 봉사 활동 사례 공유를 위해 지난 4월 24일 '새마을부녀회 봉사대상 사례발표 대회'를 개최했다.



전북 동전의 기적·청년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도협의회(회장 박용운)는 지난 3월 27일 새마을회관에서 '힘찬 동행, 동전의 기적'을 주제로 동전 분류 및 계수 행사를 열었다. 이상수 전북도새마을회장, 박용운 협의회장을 비롯해 14개 시·군 협의회장과 도부녀회 임원 등이 참석해 모금된 동전을 함께 분류하고 액수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청년 새마을연합회(회장 김인중)는 지난 3월 19일 새마을회관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24년도 사업 실적 보고 및 2025년도 사업 계획안을 승인했으며, 조영훈 신임 회장과 새 임원진이 선출됐다.



전남 새마을의 날 기념식·동전 모으기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는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 및 제15회 새마을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8일 도청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전남 지역 남녀 새마을지도자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수여식과 기념사, 축사 등이 이어졌다. 한편, 협의회(회장 박창덕)는 지난 3월 11일 새마을회관에서 '힘찬 동행, 동전의 기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전 계수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캠페인을 벌여 모금된 약 6,500만 원은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북 새마을의 날 기념식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서중호)는 '새마을운동 55주년 제15회 새마을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APEC 2025 경주 성공개회의 수문장! 경상북도 새마을'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배진석 부의장, 주낙영 경주시장 등 내빈과 새마을지도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중호 경상북도새마을회장은 기념사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경주 개최를 기원하며, 경상북도새마을이 다시 한번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산불피해 성금 전달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윤원섭)는 지난 4월 4일 산청군청을 방문해 최근 대형 산불 피해 지역 새마을가족을 위한 성금 2,100만 원과 의류 173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성호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윤원섭 경남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한 회원단체장, 산청군새마을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새마을회는 지난 4월 2일까지 산불 피해 지역인 산청군과 하동군 외의 시군 16개 곳에서 4,7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 중 1,500만 원은 중앙회를 통해 전달했으며, 성금 1,400만 원은 산청·하동군 산불 피해 지역에 직접 전달했다.



제주 새마을의 날 기념식·플로깅

제주도새마을회(회장 김창기)는 지난 4월 24일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30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 4명에게 새마을기념장이, 유공지도자 38명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오라울레길~연복로 구간을 걸으며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이북5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보성군과 여수시 일원에서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조성원 이북5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해 마영희 협의회장, 서영미 부녀회장 등 임원과 새마을지도자 50여 명이 참석해 미래 세대를 위한 운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기간 중 참석자들은 전라남도 새마을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교류하고, 보성 녹차밭과 순천만 등을 방문해 지역 문화를 체험했다.



*시군구 새마을(지)회 우수사업사례집 활동내용을 토대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서울 광진구새마을회



3R자원재활용 사업추진

무엇을?

하나, 15개동 새마을지도자들의 가정에 있는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및 고철 등을 수거
둘, 자원재활용수집운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어떻게?

•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각종 고철 등 자원 수거를 통한 수익금은 각동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의 이웃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사용

Point!

• 탄소중립운동 실천 및 생명운동의 하나로 매년 상·하반기 실시해 재사용·활용을 높이고, 폐기물 감량과 환경오염을 방지

#탄소중립운동 실천 #녹색새마을운동 실천

부산 강서구부녀회



농촌 법씨 파종 봉사활동

무엇을?

하나, 돕고 나누는 분위기 조성
둘, 농촌을 아끼는 문화 조성
셋,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어떻게?

• 일손 부족 농가를 찾아 도움 지원

Point!

•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 농촌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줌

#농촌 #일손돕기 #공동체문화 조성

서울 성북구새마을회



제80회 식목일 나무심기

무엇을?

하나, 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나무 심기 및 지속적인 관리
둘, 관내 공원 및 산책로 경관림 조성

어떻게?

• 성북구청 주관으로 주민과 새마을지도자가 함께 철쭉, 산유수, 잣나무 심기
• 올바른 나무심기 요령 전달
• 산림청 지원 잣나무 묘목을 가장자리 배치 식재

Point!

• 나무에 나무 명패 달기(내 나무 내가 관리하기)
• 참가자들이 마을에 자율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나무 배분
• 이상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비해 지속적인 나무 심기 필요성 강조

#녹색새마을 #탄소중립 #내 나무 심기

부산 기장군새마을회



기장군 어르신 한마당 축제

무엇을?

하나, 어르신들의 흥겨운 잔치 한마당
둘, 군민들의 화합 도모

어떻게?

•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볼거리 선사

Point!

• 우리 사회를 일궈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존경하는 마음
• 행운권 추첨과 축하공연으로 축제 분위기 증대

#어르신 #존경 #군민 화합

서울 중랑구새마을회



2113 도서교환전

무엇을?

하나, 책장 속 잠자는 도서를 다른 사람과 교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둘, 독서 문화 저변 확대

어떻게?

• 2022년 이후 출판된 책 중 다 읽은 책 2권당 새 책 1권으로 교환 (1인당 3권까지 교환)

Point!

• 헌책을 새책으로 교환하고 헌책 나누기
• 책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꾸준한 독서의 생활화

#도서 교환전 #문화새마을 #독서의 생활화

대구 중구새마을회



라오스 국제협력사업

무엇을?

하나, 해외 새마을운동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둘,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교육 환경 개선

어떻게?

• 라오스 루앙프라방 반픽야이 초등학교 교실 보수 공사 및 음수대 설치 점검
• 학생들에게 학용품, 의류, 수건 등을 전달하고, 현지 주민과 교류 활동 진행

Point!

•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아동 복지 증진
•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제협력 #교육환경개선 #라오스 새마을운동



인천 계양구새마을회



Let's stand up together

무엇을?

하나, 산불 이재민에게 빠른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고자 필요한 구호품을 직접 전달

어떻게?

- 생필품 전달을 통해 이재민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라는 인식 함양

Point!

- 우리 삶의 터전을 함께 복구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와 유대 강화

#산불 피해 복구 #함께 #공동체

울산 남구새마을회



새마을 줍깅데이

무엇을?

하나, 새마을운동 55주년 기념 '줍깅데이' 환경정화 활동

어떻게?

- 남구 달동 일원에서 5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이 모여 줍깅 활동

Point!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으로 지역사회 인식 확산

#새마을 줍깅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광주 동구새마을회



탄소중립 실천 평화의 숲 조성 나무심기

무엇을?

하나,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숲 조성
둘, 탄소 포집에 효과적인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운동

어떻게?

- 13개동 마을 공한지에 낙엽송, 산수유, 스트로브잣나무 등 총 3,300그루 심기
- 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나무 심기 동참 홍보

Point!

-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학생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나무 심기
- 시민들의 심미안 향상 기대
-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거듭나는 홍보 효과
- 식재 시기와 식재종을 표기한 팻말 배치

#공동체문화 조성 #탄소중립 실천 #온기 나눔 #상생연대

경기 용인시새마을회



아름다운 동행 무료급식소 행복밥상

무엇을?

하나, 소외 계층을 위한 '우행밥(우리 동네 행복 밥상)' 무료급식소 운영

어떻게?

- 새마을회관 지하 무료급식소에서 1식, 1회(80명씩), 총 118회
- 주 5일 운영 중, 기부금, 후원물품으로 식재료 마련 및 운영
- 관내 읍면동협의회, 부녀회가 함께 무료 봉사

Point!

- 홀몸 어르신, 용인시 등록 소외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공동체문화 조성 #무료급식소 #좋은 이웃 만들기

대전 중구새마을회



새마을의 날 기념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환경정화

무엇을?

하나, 새마을의 날 기념 산불 예방 캠페인
둘,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환경정화 활동

어떻게?

- 환경정화 활동과 병행하며 새마을운동 홍보

Point!

- 대전 중구 보문산에 새마을가족 회원들이 모여 새마을의 날 기념홍보
-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

#새마을의 날 기념 #환경정화 #녹색새마을 가꾸기

경기 파주시새마을회



봄맞이 국토대청소 활동

무엇을?

하나, 봄맞이 국토대청소 활동

어떻게?

- 봄을 맞아 소리천, 야당역 상가 일원에서 새봄 새맞이 국토대청소
- 새마을지도자 50여 명이 참여

Point!

- 새로운 도전,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줍깅으로 깨끗한 환경 가꾸기에 앞장

#공동체문화 조성 #국토 대청소 #살맛나는 공동체



경기 화성시새마을회



10만 문화벨트 네트워크 구축

무엇을?

하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어떻게?

- 화성문화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10만 문화벨트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음

Point!

- 지식과 문화의 나눔, 기본이 바로 서는 독서문화운동 실천을 위한 활동

#독서문화운동 #업무협약 #화성문화원

충북 청주시새마을회



새마을문화축제 '새마을과 놀자'

무엇을?

하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체험 부스 운영
둘, 지역문화운동 확산에 기여

어떻게?

- 청주시새마을회 산하 4개 회원단체 및 3개 유관단체 참여
- 단체별 특색을 살린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 운영

Point!

- 시민 참여 다양한 놀이 콘텐츠 제공
- 다양한 체험을 통한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류
- 즐거움 속에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새마을운동

#공동체문화 조성 #문화새마을 #새'며들다

강원 영월군새마을회



바람 속에 심은 희망 한 그루

무엇을?

하나,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약속 생명의 나무 심기
둘, 새마을의 날, 지구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환경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

어떻게?

- 단풍나무와 모과나무 등 1,000여 그루 심기

Point!

- 자연과의 공존을 실천하고 푸른 영월의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 작은 손길을 모아 큰 변화 만들기

#탄소중립 실천 #나무 심기 #온기 나눔

충북 옥천군새마을회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촬영

무엇을?

하나, 다문화가족과 융화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현
둘, 행복과 추억을 담은 가족사진으로 건강한 가족관계망 확립

어떻게?

- 매년 사진작가협회와 함께 다문화가족 10가구에 가족사진 액자 전달

Point!

-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다문화가족 #좋은 이웃 만들기 #행복한 지역공동체

강원 양구군새마을회



양구군수와 소통 간담회

무엇을?

하나, 양구군수와 새마을지도자의 소통 간담회
둘, 지역 현안 및 새마을 사업의 긴밀한 업무협약의

어떻게?

- 읍면에서 필요한 여러 안건과 법인화 추진 및 타 시도와 교류
-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에 관한 긴밀한 업무협약의 진행

Point!

- 양양군수와 간담회를 통해 행정과 새마을회가 공동의 창출을 위한 긴밀한 업무 협력관계 조성

#소통 #간담회 #온기 나눔

충남 논산시새마을회



홀몸 어르신 밑반찬 나눔

무엇을?

하나, 홀몸 어르신의 건강증진
둘, 사회적 고립된 홀몸 어르신 정서적 지원

어떻게?

- 부녀회가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전달해 어르신의 영양가 있는 식사와 건강 유지에 기여

Point!

- 지역주민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식 함양 및 지역사회 결속력 강화

#공동체문화 조성 #문화새마을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충남 청양군새마을회



새마을의 날 기념 새마을 줍깅데이

무엇을?

하나, 새마을의 날 기념 줍깅데이
둘, 주민 스스로 관내 쓰레기 수거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어떻게?

- 새마을 줍깅데이 운영으로 환경보호
- 주민의 정책참여 촉진과 관심 유도

Point!

• 연대와 건강증진, 인식변화를 통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지역연대 건강 증진 #녹색새마을 #기후변화 대응 실천 운동

전남 여수시새마을회



탄소중립, 희망나무 심기

무엇을?

하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범시민적 나무심기 참여 분위기 조성
둘, 미래 세대와 자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녹색 공간 조성

어떻게?

- 지역 환경 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식재
- 심은 나무에 대한 책임 관리제를 운영해 지속적인 생육 관리

Point!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이고 실질적인 기후 친화적 행동 확산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염원 담기

#녹색새마을 #육묘와 조림 #나무 심기

전북 익산시새마을회(봉우리청년새마을연대)



봉우리와 함께하는 편(Fun)한 클린산행

무엇을?

하나, 자연을 위한 작은 실천
둘, 새마을운동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운동 인식 확산

어떻게?

- 청년새마을연대 회원과 자녀 함께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줍깅 클린산행
- 산을 up(오르며), 건강도 up(챙기고), 자녀와 함께 지구사랑 up(실천하고)

Point!

•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며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 유도
• 우리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탄소중립 실천과 봉사의 의미 전달

#공동체문화 조성 #청년이 미래다 #탄소중립 실천

전남 보성군새마을회



농촌재능나눔 한마당

무엇을?

하나, 단체 및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한 농촌재능나눔 추진
둘, 농촌 지역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어떻게?

- 관내 12개 읍면 각 1개 마을을 선정, 총 12회에 걸쳐 진행
- 다양한 재능을 농촌 어르신과 함께 나눔

Point!

• 국악 한마당, 이·미용 봉사, 메이크업, 손 마사지, 에코백 만들기 체험활동, 칼같이, 스텝사진 촬영, 간식(팝콘) 나눔 등 재능나눔 프로그램
• 새마을지도자와 타 봉사단체의 협력으로 진행

#공동체문화 조성 #재능 나눔 #힐링

전북 남원시새마을회



이웃사랑 실천 - 따뜻한 정 나누기

무엇을?

하나, 이웃 간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여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둘, 노인복지시설 내 어르신들의 외로움 해소와 깨끗한 환경 제공

어떻게?

- 새마을가족이 어르신들의 식사 도움과 말동무가 되어 외로움 해소와 정 나누기
- 노인복지시설 청결 활동과 정리 정돈을 통한 환경 개선 및 물품 전달

Point!

•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해소 등 나눔 돌봄 실천
• 각 읍면동 안에서 지속적인 따뜻한 정 나누기

#공동체문화 조성 #나눔 돌봄 #이웃사랑 실천

경북 구미시새마을회



시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새마을 알뜰벼룩장터

무엇을?

하나,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운동 확산
둘, 나눔문화 실천을 통한 재사용 문화 조성

어떻게?

-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재활용하고 근검절약 정신을 실천하는 중고거래장터 운영

Point!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중고거래 장터
• 먹거리 장터, 소확행 체험부스의 수익금으로 나눔 실천

#공동체문화 조성 #녹색새마을운동 #나눔문화



경북 영주시새마을회



탄소중립 밀원수 심기 운동

무엇을?

하나, 영호남 나무 심기 교류를 통한 동서 화합
둘, 꿀벌 개체 수 증가 및 양봉 종사가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게?

- 영주시협의회와 부녀회, 나주시협의회와 부녀회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 엘더베리 나무 1,000그루 심기

Point!

-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공동체문화 조성 #나무심기 #탄소중립운동

경남 창원시새마을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핵심리더 워크숍

무엇을?

하나,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리더 역량 강화
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도출

어떻게?

-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함께 핵심 리더 워크숍을 진행해 참여자 간 소통과 협력 강화
- 화합과 우정의 시간을 마련해 참여자 간 친목과 협력 의지 증진

Point!

- 새마을정신의 재해석과 미래 방향 설정
- 워크숍을 통한 소통 강화로 지역 내 협력 체계 구축 및 화합 증진

#새마을의 날 기념식 #리더십 향상 워크숍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경남 의령군새마을회



문고 작은도서관 '의병홍의서당' 운영

무엇을?

하나, 지역축제장 휴게시설 내 작은도서관 운영
둘,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어떻게?

-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도서 및 블록교구 무료 대여
- 휴게시설 안전관리 및 탄소중립 실천 환경정화 활동과 독서문화 홍보

Point!

-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
-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및 새마을문고 홍보

#공동체문화 조성 #작은도서관 #홍의장군축제

새마을 라운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새벽종> 03+04월호 독자 의견



김성철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운동, 탄소중립으로 미래를 그리다'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새마을가족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참여와 실천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수진

이경준 위원장님의 인터뷰를 보고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 산림녹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많은 기록물이 수집되어 우리나라 산림녹화 성공 사례가 세계에서 더 인정받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산림이 소실된 지금 더욱 필요한 기록이라 생각합니다.



장우익

늘 '희망 에세이'에 눈길이 가네요. 새마을가족이 서로를 응원하며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박향숙

따뜻한 봄이 찾아오니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 중 '봄에 나는 모든 나무는 약'이라는 말이 더욱 와닿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봄나물이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다양한 봄나물 덕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 강하니,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QR코드 스캔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수수료 효율성 부문

4년 연속 우수 선정

'19, 21, 22, 23, 24년 우수사업자 선정
[출처: 고용노동부]

5회 이상 우수평가는
신한투자증권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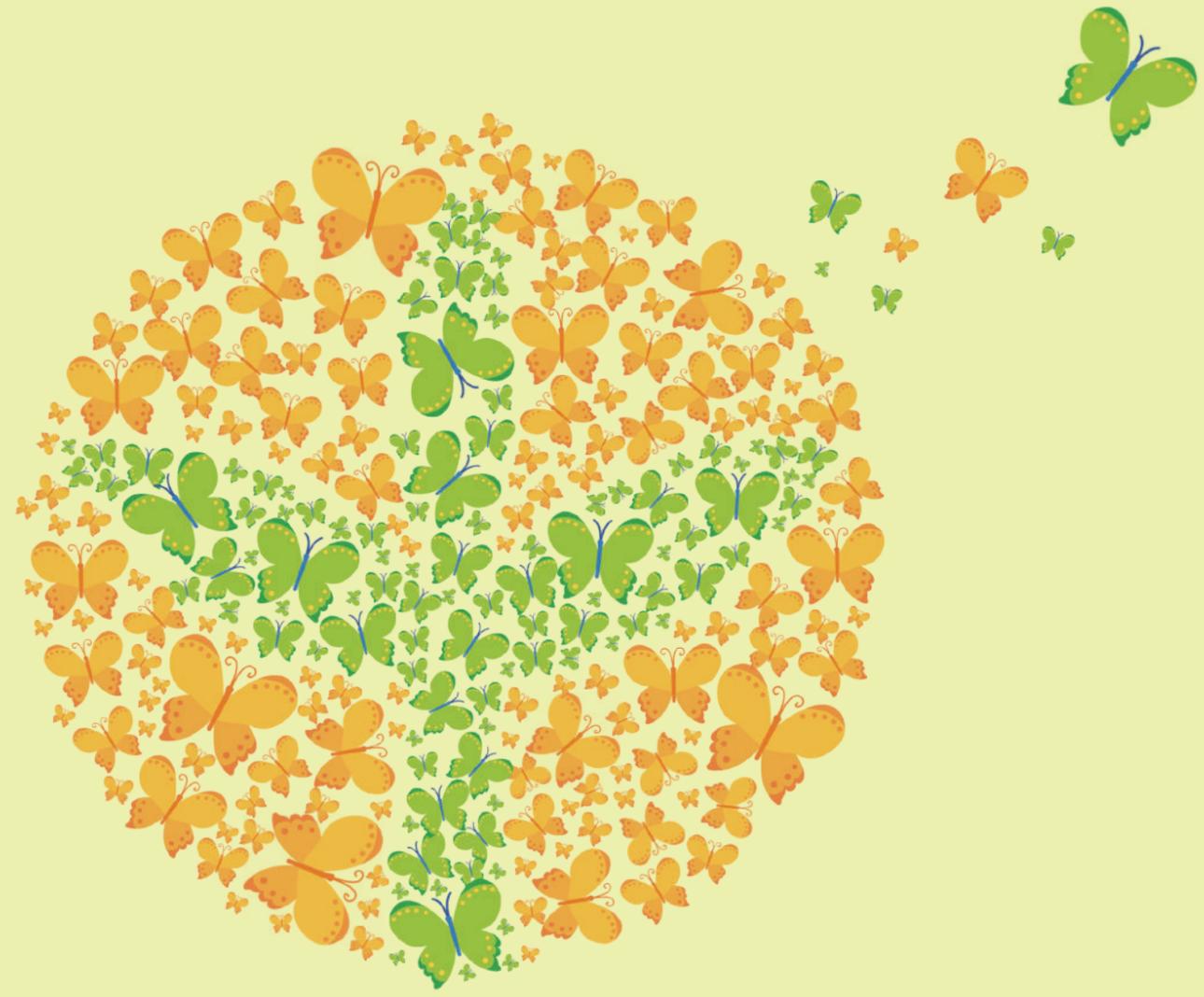


프로의 %관리를 조건없이 무료로! 신한투자증권 프로 IRP

연금리더와 디지털PB의
1:1 고객 맞춤형 컨설팅

대면/비대면 IRP 관리수수료 0원
[단, 상품별보수 별도발생]

퇴직연금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펀드 보수 등 상품별 자체비용 및 증권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C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가입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부담 DC 운용관리 수수료율: 연 최소 0.08%~최대 0.25%, 사용자 부담 DC 자산관리 수수료율: 연 최소 0.10%~최대 0.20% (적립금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 0% [단, 펀드 보수 등 상품 자체 비용 발생 가능] [연금저축 유의사항] 연금저축 ETF 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 수수료율 0.189733%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사인 심사필 제25-0519호 [2025년 03월 26일 ~ 2026년 03월 25일]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5084호(2024년 12월 15일 ~ 2025년 03월 31일)



4월 22일 제15회 새마을의 날

국민과 함께해 온 역사의 날들을 되새기며
더 희망찬 미래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